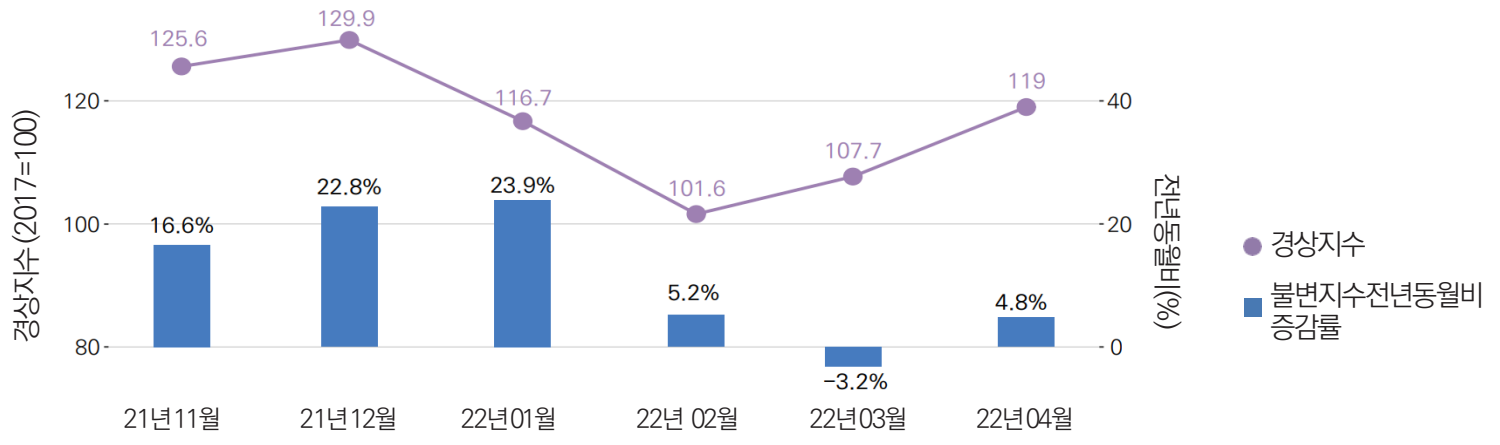
도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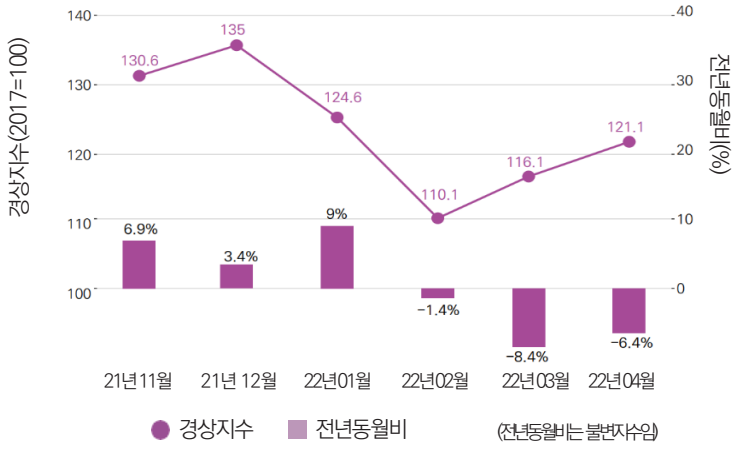
- **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4.8% 상승.**
  - 전년동월대비 +4.8% = 소매업의 기여도 -4.4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9.2%p
  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  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- **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.4% 하락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29.7% 상승**
  -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의복·섬유·신발(3월 -49.9% ⇨ 4월 -35.9%), 연료(3월 -33.0% ⇨ 4월 -29.9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3월 -9.9% ⇨ 4월 -7.8%) 등의 하락폭 감소와 문화·오락·여가(3.2%), 종합소매(1.7%) 등이 증가세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하락세 유지.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(-12.2%)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
    - 4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,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
    -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연료, 무점포소매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  - 도심권은 숙박·음식점업이 상승하였으며, 오름폭은 (전월보다) 크게 확대. 음식점(3월 -5.8% ⇨ 4월 19.1%), 주점·커피전문점(3월 -3.5% ⇨ 4월 14.4%)이 상승세로 전환
    - 4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모두 소비 증가

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